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23년 / 12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21일(목)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및 2024년 사업 계획 1차 토의

■ 연구원 소식

김경수 이사 도서 기증

광주를 떠나 지난 6년여간 서울 천호동에서 김경수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김경수 이사가 다시 고향 호남으로 돌아와 2024년 1월부터 광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이전하며 그동안 귀하게 모았던 도서 300여권을 연구원에 기증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연구원 사무국 식구들이 직접 서울로 찾아뵙고 도서를 연구원에 옮겼습니다.

가벼운 에세이집부터 전문적인 인문사회과학 서적까지 그동안 김경수 이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지혜의 바다를 주유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전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제 서울보다 가까운 광주로 돌아오셨으니 자주 그리고 넉넉하게 뵙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송년회 잘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2023년 송년회와 59차 문화강좌, 도서나눔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회원들의 열기가 여전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2024년 보다 많은 사업으로 더욱 자주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DMZ 걷기, 여섯 번째 이야기

경기평화누리길 제3구간 - 2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그런데 이곳에서는 근무자를 위한 참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따금 우뚝 솟은 전망대만 보일 따름이다. 옛날처럼 일일이 초소에서 근무를 서지 않고, 전망대 위에서 감지 장치와 CC-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는 경계근무 방식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장소로 병력이 곧장 출동하는가 보다. 옛날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편안한 근무 형태 아닌가?

문득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을 피하고자, 옷이란 옷은 모두 껴입고 뒤뚱거리며 근무 교대에 임하던 우리 소대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오느라 더욱 날을 벼른 바람을 이겨낸다고, 우리는 그때 얼마나 고생했던가?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쉬던 입김으로 방한모 앞쪽이 하얗게 얼어붙지 않았던가? 어쩌다 한번 위로 삼아 라면을 끓여주면, 병사들의 입꼬리가 행복에 겨워 귓가에 걸리지 않았던가?



한강의 끝자락에 펼쳐진 김포평야는 여전히 널찍했다. 날씨 탓에 먼 곳의 산들이 흐린 봄 기운에 묻혔으니, 마치 지평선을 바라보는가 싶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까닭에 논과 밭은 바짝 말라붙었지만, 수많은 겨울 나그네들이 창공을 가로질렀다. 오리와 기러기 떼가 무료한 한겨울의 농촌 풍광을 근사하게 꾸며내는 중이었다.

봄날은 느리게 흘렀고, 마른 바람이 가랑잎을 날렸다. 그 바람은 마근포리의 회관 앞을 스쳐, 마조리로 들어갔다. 내내 평탄하던 걸음이 조금 기우뚱해질 무렵 연화사蓮花寺가 나타났다. 밥차가 이곳에 먼저 와서 회원들을 맞았으니, 모두가 감식으로 배를 불렸다. 고개를 들어 보면, 한강 맞은편의 잣빛 하늘 아래로 파주의 오두산이 아련하게 내다보였다. 식사를 마친 걸음은 다시 농로를 지나 후평리의 습지로 우회하였다. 이 걸음에서 처음으로 수로를 만났으니, 한 가닥 가느다란 물줄기를 따라 낚시꾼들이 빼곡하게 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멀리 앞쪽의 논바닥에 재두루미 몇 마리가 한가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지 않은가? 이마에다 그 붉은 단정丹頂을 환하게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 고향의 앞 논에서 흔히 보았던, 그러다가 어느결에 자취를 감춘 두루미, 바로 학이었다. 그 반가움에 이야! 하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흑두루미와 하얀 학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기에, 저 잣빛 두루미를 대표로 보내왔는가? 우리는 넋을 잃고 오랜 시간 새들을 지켜보았다.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곳이었으니, 전망대 아래쪽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다친 새들의 쉼터였다. 그곳의 우리는 대부분 기러기와 독수리들의 차지였다. 철새도래지에서 전류리 포구까지는 약 4km에 달한다. 철책을 끼고 가는 일직선 도로이다. 강 건너 일산의 심학산이 줄기차게 따라오는 길이다.

옛 추억에 젖어 이리저리 둘러보자니, 41년 전의 기억들이 편린으로 떠올랐다. 116초소 앞에서 늘 바라보던 곳이 전류리의 성봉산 아니던가? 그 앞쪽의 갈대밭과 사미섬이 하나씩 실물로 등장하자, 일정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전류리는 한강 하구의 제일 위쪽을 점한 포구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황복과 참게의 산지로 유명했다지만, 지금은 접경 지역의 스산함을 지닌 곳이다. 남북의 대치라는 현실 앞에서 저절로 위축된 까닭이다.

우두커니 서서 그 옛날의 고양시 일산읍 송포리를 오랫동안 건너다보았다. 어느샌가 새파란 청년 장교 하나가 푸른 물살 너머 제방 위에서 서른 명 남짓한 소대원을 이끌고 뛰어가는 중이었다. 다음 달에 걷기로 한 길목이었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